

교회 목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인	'2002년 교회생활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4권 1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2년 1월 6일
☎520-9464/021-292-1639, ☎71 Khyber Pass Rd. (The Church of the Holy Sepulchre)		

결혼생활 11년이 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그 기간동안 한 번도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정확히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 저녁 11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퇴근을 하면 아무 말도 없이 피곤하다며 잠을 잤습니다.

이 생활을 아내는 8년까지는 감당을 했지만 8년이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우울한 심령이 되어가며 점점 몸에서 힘이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게 된 것입니다.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려다 한 두 번 정도 쓸어 지기도 했고 몸은 점점 수척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니 좀 이상해졌고, 그 증상이 그가 알고 있는 의학상식으로는 암이 발생하는 초기 증상이라 느껴져, 대학 동창이 의사로 있는 종합 병원에 연락을 해 종합진찰을 받기로 하고 아내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오후 퇴근 시에 데리러 가서 친구에게 물으니

"현대 의학으로서는 어쩔 수 없으니 좀 있다가 다시 한번 진찰을 해보세."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오후 6시에는 퇴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오후 6시에 퇴근한 남편이 저녁을 먹고 요를 깔고 벽 쪽으로 돌아누워 한 손에 신문을 펴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상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그렇게 하는 것이 혹시 회사에서 퇴직을 당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불안해 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그렇게 누어있는 남편을 두 어깨를 확 잡아채니 남편은 신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일어나 다구친 것입니다.

"당신 퇴직 당했지요?" 하고 물으니

"당신을 병들어 죽게 만든 것이 내 잘못이야." 하면서 다시 돌아 누어 울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 아내도 자기 자리에 가 반대쪽 벽을 향하여 돌아누워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기 시작한지 두 달 반이 지났는데, 남편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아내가 한 두 번씩 쓸어 지던 증상이 없어졌고, 밥도 잘 먹고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을 해서 남편이 서둘러 다시 병원에 연락해 다시 한 번 종합진찰을 받으러 아내를 데려다주고 오후에 퇴근하며 아내와 함께 오려고 병원으로 데리러 가니 친구 의사가

"이상해 암 덩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졌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겨울을 녹인 사랑이 가져다 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새 아침의 기도

벌써 새해 첫 날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걸어놓았던 카렌다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멀리 예루살렘의 황금 돔이 보이는 언덕 위에서 한 남자가 돔을 바라보고 서 있는 성화가 열렸습니다.

아마 오래 전에 살아져버린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잃어버린 성도(聖都)를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축복하신 땅. 지금은 화약 냄새가 끊이지 않고 넘치는 포화의 땅. 사탄이 활개치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찾으실 것입니다. 울 한해 우리의 삶이 예루살렘 성처럼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악취만 풍기는 사탄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진실하며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되게 하여 주소서

옛 영화만을 바라보는 예루살렘 성의 남자처럼 어리석은 후회나 회한으로 남지 않는 한해가 되게 하소서

주 일 예 배

영 광 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48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53(계 21장)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 송 Hymn	410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김정미 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에베소서 5:15-27(신315)	인 도 자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十 성 찬 식 Communion	(위원:김교섭.김종건.정희자.지찬영)	다 같이
성가대 찬양 Couple's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표현하는 사랑이 아름답다"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431'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atory Prayer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믿음 더욱 굳세라'	다 같이
위탁의 말씀 Encouragement		인 도 자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1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Tea Time	주일 안내
6일	김정미	박일영	김교섭.김시욱	김교섭.정희자
13일	김종건	송정섭	김성국.김영길	정덕수.김순자
20일	노은숙	신경화	김종건.박일영	최윤희.송정섭
27일	박일영	인치혁	인치혁.권용일	박일영.임혜자

'2002년 교회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실천사항>표현하는 사랑만이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달살들은 애정표현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교회를 정하는게 바른 판단이 됩니다
---	---

주일예배 12:00 | 수요일예배 7:30 pm | 금요일새벽기도: 6:00 | 아동.학생.청년부: 주일12시

교 회 소 식

- 2002년 교회생활 표어: "가족으로 오신 예수님"
*성경:엡5: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1월의 실천사항: 1월중 가족끼리 야외(beach, park)에서 1회 식사하기
- 임명주일: 올해, 교회봉사를 조금씩 나눠하면 즐거운 교회생활이 될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복종으로 하면 무거운 멍에이고
사랑으로하면 즐거운 멍에"입니다
- "믿음의 어머니"기도회: 새해 첫모임입니다. '믿음의 어머니'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진 작년한해의 기도응답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실감합니다
- 수요일예배: 탐방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금주의 추천 탐방교회: '오클랜드 한인교회(수 7:30).
- 다다음주일(20일)에는 야외예배로 드립니다.
*식사: 구역별로 준비(+ 유학생 1명)
- 교우소식
*손승일 성도(윤한나 집사 남편)께서 다니러 오셨습니다.
*갈보리가족 되심을 모두 기뻐합니다.
유광진 성도(혜승). ☎441-4567 ☐29 Beaudine Ave. Glenfield
- 1월 교회력

	교 회 력	모임 및 행사
6일	신년주일.정찬식. 직분임명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8일)
13일		
20일	야외예배	
27일	'이삭줍기'봉헌	수요일예배개강(30일)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충고

야한 화장
화장을 너무 야하게 하지 마라.
약점과 감출것이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충고

힘들거든 노래를 불러라
힘들 때 짜증내면 더 힘들게
느껴지지만
노래를 부르면 새힘이 솟는다.